대광불자회 30년, 장애인불자 신행 도약

1월 28일 대구 남구 새 법당서 기자회견

1991년 장애불자 16명서 창립해 바자회 등 소외 계층 나눔 나서 매주 금요일 법회, 복지에 앞장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광불자회는 1월 28일 남구 새 법당에서 창립30주년 법회를 열고 장애인포교 비전을 밝혔다.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장애인불자신행 단체인 대광불자회(회장 이재달)는 1월 28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구 남구 이천로26길에 위치한 새 법당에서 지역 교계언론과 도약과 포부를 밝히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광불자회는 기존 법당이 있었던 중구가 재개발되면서 법당 이전을 추진해 왔다.

대광맹인불자회는 1991년 9월 대구 남산동 보현사에서 16명이 모여 창립해 1992년 10월 법당 봉불식과 함께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열고 쌀과 장학금 등을 전달하며 시작됐다.

1993년 이후에는 사회시설에 안마봉사, 대구 · 경북시각장애인 포교를 위한 녹음테이프 제작 보급, 사물놀이단 창단, 직업재활교육생 무료급식, 〈금강경〉 암송대회, 점자 〈천수경〉 제작 배포 등을 진행했다.

2006년에는 기초교리강좌를 개강하고 대구 중구 독거어르신들과 함께 성지순례 음식잔치봉사도 가졌다. 이에 그 해 대한불교진흥원 주관 대원상 단체특별상도 수상했다.

2016년 대구 중구청, 남산사회복지관 협력으로 시각장애인문화해설사 7명을 배출했으며 100건 이상 문화해설을 담당케 했다. 현재 150명의 회원이 활동 중으로 요가교실, 민요교실 등 다양한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대광불자회는 이날 포교사업으로 매주 금요법회를 열고, 지역 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해 정기법회 및 5대 절기 법회를 지속적으로 봉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사업 또한 확장해 매년 수시로 쌀과 김장김치, 생필품 나누기를 지속한다. 문화사업으로는 영화보기 및 체험행사, 스포츠 관람 등을 진행한다. 또한 장애인 성지순례와 시각장애인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구 중구 근대 골목투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결식아동 돕기와 지역아동센터 도서지원, 불교복지시설 안마봉사,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전문봉사자 배양 프로그램을 폭넓게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재달 회장은 이날 대광불자회는 "시각장애인불자들의 권익보호와 포교 및 신행활동을 위해 결성된 대광불자회는 이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복지사업 및 신행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새 법당을 중심으로 회원을 확대하고 점자도서 및 녹음테이프 등을 제작 보급하여 3만명에 달하는 지역맹인을 포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부처님품에서 안락한 마음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갔으면 한다. 대광불자회의 아름다운 동행에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당도해 절실한 시절 인연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경림 대광맹인불자회 사무국장은 "향후 대광맹인불자회를 법인으로 등록해 새 법당을 중심으로 신행단체 뿐만 아니라 직업 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53)256-0114



광주불교연합회 유튜브채널에 소개된 연희단 영상 캡쳐.

광주불교聯, 연희단 영상 유튜브 연재

SNS 기반해 봉축 활동 홍보 전개

코로나19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불교계의 법회와 행사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영상과 SNS를 기반으로 하는 포교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중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사찰 연희단의 모습을 영상으로 편집해 유튜브에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연희단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서 사찰을 대표해 율동을 하는 신도들을 말한다.

광주지역 사찰 연희단은 지난 2016년에 첫 시작을 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12개의 사찰과 단체가 연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연희단의 연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튜브 연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총무부장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은 "연희단은 전통율동과 노래로 신명나게 즐기는 모임인데, 서로가 만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다"며 "이번 각 사찰 연희단의 영상은 서로 보지 못한 긴 시간을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연희단 뿐만 아니라 광주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의 다양한 준비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향림사, 증심사, 연화사(지산동) 등이 만들어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고, 향후 다른 연희단도 추가로 공개된다.

연희단에 참여해 영상을 본 박성준(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씨는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환희스러웠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영상에는 연희단의 연습 장면과 봉축행사장에서의 공연 모습 등이 담겨 있으며, 사찰 신도의 자세한 설명 등이 담겨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연희단에 이어 전통등(燈) 만드는 과정 등도 영상으로 만들어 4~5월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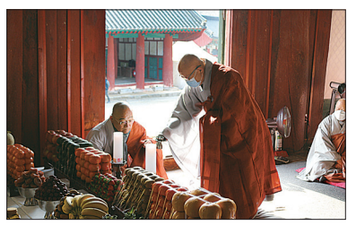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기당 성원대종사 39주기 추모재 봉행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인 운기당 성원대종사 39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1월 31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추모재에는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재곤 스님, 대우 스님, 범여 스님, 법현 스님 등 원로스님들과 문도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이날 추모재에 참석한 스님들은 운기당 성원대종사의 유지를 이어 수행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문도를 대표해 대우 스님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준 문도 스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41년 만에 회수

부여 무량사 목조불 좌상 2점 2019년, 2020년 이은 세번째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앞면)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뒷면)

1980년에 도둑맞은 것으로 알려진 '고창 선운사 석씨원류' (전북 유형문화재 제14호) 목판 1점과 부여 무량사 목조불좌상 2점이 환지본처했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서울 경찰청 지능수사대는 공조수사를 통해 2006년 전남 장성군 필암서원 내에서 도난당한 '하서 유묵 묵죽도판' (전남 유형문화재 216호) 묵죽도판 3점을 비롯해 전북 유형문화재 제14호 고창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1점, 부여 목조불좌상 2점 등 총34점의 도난문화재를 회수했다,

문화재청은 사범단속반은 2019년 7월 도난문화재 관련 첩보를 입수해, 문화재 매매업자와 문화재사범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였고, 수사 끝에 도난문화재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고창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은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석가모니 이후 서역 및 중국에서 불법이 전파된 사실을 글로 쓰고 여기에 민중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배치,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다.

'석씨원류' 는 1468년(성종 17년) 왕명에 의해 판각됐다. 임진왜란때 불타 없어졌으나 그후 사명대사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구해온 것을 최서동과 해운법사가 이를 대본으로 하여 조선 인조 26년(1648)에 복간했다.

가로 39㎝, 세로 29.5㎝의 목판본으로 원래 103매의 목판으로 판각되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절반가량이 망실되고 50매 100판의 원판과 별도의 2매 4판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석씨원류' 판각은 조선시대 삽화의 걸작 중 걸작이며 우리나라 미술사 특히, 판화의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연구자료이다. 현재 선운사는 망실된 '석씨원류' 목판본 복원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밖에 충남 무량사 목조불좌상 2점도 함께 회수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사찰, 방역당국에 팥죽 전달

복암사 · 소원정사 · 광덕사 등 동참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광주에서, 불교계 사찰들이 잇따라 방역당국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복암사(주지 도성, 광주불교연합회장)는 1월 29일 광산구청 보건소를 방문해 팥죽 500명분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도성 스님은 "팥죽은 예로부터 나쁜 액운을 막아주고 건강을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모두 건강하게 방역활동을 해가기를 기원한다"고 전달 의미를 설명했다.

광산구는 지난 1월 27일 TCS국제학교 코로나 확진자가 100여 명을 넘으면서 집단 감염의 지역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한편, 소원정사(주지 도계), 광덕사(주지 상진)도 2월 2일 남구청 상황실을 방문하고 팥죽 500명분을 전달하며, 연일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격려했다.


복암사 대중들이 팥죽 포장을 하고 있다.

도계 스님은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입춘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다. 따뜻한 온기의 팥죽으로 추운 마음을 녹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는 최근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와 각 사찰의 후원으로 각 구청과 병원 등에 팥죽 전달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